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0

▶ 81회 예고
아쇼까왕은 옛 아반띠국 부왕으로 가는 도중에 꼬삼비에서 우빠굽따 장로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우빠굽따는 붓다의 성지를 순례 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순례자 우빠굽따가 아쇼까라마에 와서 또 다시 아쇼까왕을 만난다.



아쇼까, 전륜성왕 되기로 맹세

깔링가국 왕을 처형한 아쇼까왕은 군사들에게 휴식을 주었다. 다야강 강변 임시군막에서 보병들은 잠을 자거나 부러진 장창을 보수했다. 코끼리부대는 회군을 염두에 두고 전투코끼리들을 강변 초지에 방목했다. 기마부대는 다울리 언덕 뒤편 도시 변두리로 나가 포로 15만 명을 감시하면서 휴식했다.

깔링가국 도시의 바이샤나 수드라들은 끄샤뜨리야와 달리 마을에 불을 지르지 않은 아쇼까왕에게 호의적이었다. 아쇼까왕이 '승가의 보호자'이면서 '믿음의 상속자'라는 소문이 돌면서 호감을 갖는 마을주민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깔링가국이 본래 불교신자가 대부분인 나라였으므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들은 마우리아국 백성이 되더라도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에 의지할 수 있다며 은근히 안도했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다울리 언덕에서 참모와 대장들을 불러 날마다 자축연을 열었다. 언덕 정상에 있는 성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성 안에 깔링가국 왕과 백성들이 예배를 보던 붓다의 나무가 있는 성스러운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붓다의 나무는 나뭇잎이 심장 모양으로 생긴 핍빨라 고목이었다. 3일째 되는 날의 자축연에서는 삿다 장로도 참석했다. 아쇼까왕은 코끼리부대장에게 이동법당 수레를 다울리 언덕까지 끌고 오게 하는 등 삿다 장로에게 정중한 예를 갖추었다.

"삿다 장로시여, 일전에 들었던 수레바퀴 법문을 다시 듣고 싶어 이 자리에 모시었소. 더 긴 법문을 해줄 수 없겠소?"

"대왕님이시여, 사문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호위대장이 말했다.

"대왕님, 법문을 듣기 전에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말해 보시오."

"이곳에 전차부대까지 왔으면 대왕님의 위엄이 더욱 빛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하다니강을 건널 때 전투코끼리를 타고 넘어질 뻔해서 그런 것이오?"

"아닙니다. 대왕님은 그 어떤 군사보다 코끼리를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오?"

"마우리아국 사군(四軍) 모두가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차부대를 사랑하는 대장 마음이 느껴지오. 대장은 친위대장이 전차부대를 맡기 전까지 지휘했으니까 말이오."

아쇼까왕은 호위대장의 마음을 이해했다.

"사군 중에서도 전차부대는 대왕님의 권위이자 위엄입니다."

아쇼까왕이 가까운 지방으로 순행할 때는 전차부대가 호위하고 위엄을 과시했다. 뿐만 아니라 우기가 되면 아쇼까왕은 일산을 고정시킨 대왕코끼리를 타지 않고 군마 네 마리가 끄는 전차를 이용했다. 전차는 대가(大駕) 전체가 구리로 된 쇳덩어리였다. 수레바퀴까지 구리로 만들어져 견고했다. 드넓은 초원에서는 수레바퀴가 땅에서 뜬 채로 달려 더 빠른 속도를 냈다. 물론 이와 같은 전차는 잠부띠바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잠부띠바 북쪽 히말라야 설산 너머의 땅인 진나라에도 있었다. 진나라 백성들은 진시황이 타는 전차를 동거마(銅車馬)라고 불렀다. 구조는 아쇼까왕이 타는 전차와 엇비슷했다.

"대장, 전차부대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가 아니겠소? 전차부대가 아니라도 나의 권위와 위엄은 이미 드러났소. 그러니, 삿다 장로의 법문을 듣기 위해 이동법당 앞으로 갑시다. 장로시여, 나는 물론 우리 대장들에게 수레바퀴 법문을 다시 해주시오."

"예, 대왕님이시여."

아쇼까왕과 삿다 장로 등은 연회장으로 사용하는 군막에서 나와 이동법당 수레가 있는 곳으로 갔다. 수레 너머에는 작은 고깔처럼 생긴 주황색의 빠또리아 꽃들이 주렁주렁 피어 있었다. 빠또리아 꽃 뒤로는 나무들이 음음했다. 나무 이파리들은 아쇼까왕이 허리에 차고 있다가 마하다니강에서 잃어버렸던 칼 같았다.

이동법당에 오른 삿다 장로가 법문을 시작했다. 아쇼까왕은 일산 아래 코끼리가 조각된 의자에 앉았다. 반면에 대장과 참모, 부관들은 정수리에 쏟아지는 오후 햇살을 그대로 받으며 삿다 장로를 주시했다.

"대왕님께서는 위대한 사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군을 거느린 대왕을 전륜성왕이라고 부릅니다. 사군이란 아시다시피 코끼리부대, 기마부대, 전차부대, 보병부대입니다. 고따마 붓다께서도 사군이 있었습니다. 대왕님께서 사군이 있는 것처럼 고따마 붓다께서는 사성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그것입니다.

붓다께서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사성제를 설했을 때의 모습은 전륜성왕(轉輪聖王)이 사군을 거느리고 적국의 성문 앞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붓다께서 법을 설할 때 제자들은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고 여기어 법륜(法輪)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전륜성왕이라고 부를까요? 왜 '수레바퀴를 굴리는 왕'이라고 하였을까요? 대왕의 수레바퀴는 대왕의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대왕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적군이 막지 않거나 막을 수 없다면 적군은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륜성왕의 수레바퀴를 막을 나라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전륜성왕이 막강한 사군을 거느리고 적국의 성문 앞까지 가면 적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붓다께서는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왕입니다. 붓다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전륜성왕이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듯이 누구도 붓다가 굴리는 담마(법)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붓다의 진리를 아무도 반대하지 못합니다. 붓다께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시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전륜성왕에게 성문을 열어주었듯 누구도 아무런 저항 없이 붓다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붓다께서는 〈초전법륜경〉에 나와 있듯 어떤 사람도 멈출 수 없는, 위없는 가르침의 수레바퀴를 굴리셨습니다. 그것도 오직 앞으로만 구르는 수레바퀴입니다. 붓다께서 게송으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쎌라여, 나는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립니다. 거꾸로 돌릴 수 없는 수레바퀴를.'

붓다의 수레바퀴는 오직 소나 말의 수레처럼 앞으로만 굴러갑니다. 그래서 고따마 붓다를 '거꾸로 돌릴 수 없는 수레바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에 실려 있는 가르침입니다. 전륜성왕의 사군은 동서남북의 대륙을 정복합니다.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정복합니다. 칼에 피를 묻히면 전륜성왕이 될 수 없습니다. 경에도 '전륜성왕은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대륙을 정복하되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고 칼을 사용하지 않고 정법을 사용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경에 나와 있듯 적국 왕은 성문을 열어주면서 말합니다.

'대왕이여, 어서 오시오. 대왕이여, 환영합니다. 대왕이여, 모두가 그대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적국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왕이여, 교칙을 내려주십시오.'

이때 전륜성왕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말라.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지 말라.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시지 말라. 먹기에 적당한 것을 먹어라.'

전륜성왕은 동서남북 세상을 정복하되 붓다의 진리로 정복하는 대왕입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다야강에 칼을 버리시면서 '나는 오늘 이후부터 칼 대신 담마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니라. 담마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문이 지금까지 설한 바대로 대왕님께서는 마우리아국 대군 앞에서 전륜성왕이 되기를 맹세하신 것입니다."

삿다 장로가 수레바퀴에 대한 법문을 설하고 나자, 아쇼까왕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장로의 고향이 어디오?"

"사문의 고향은 바로 여기 깔링가국 라트나기리입니다."

"오, 나는 사문의 나라를 정벌하러 왔는데 따라오면서 괴롭지는 않았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께 사문이 나서서 자원했습니다. 사문은 대왕께서 '믿음의 상속자'이시니 마우리아국이든 깔링가국이든 어디를 가든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깔링가국 백성들은 곧 망국의 슬픔을 잊고 대왕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대왕님께서는 칼을 버리고 담마의 대왕인 전륜성왕이 되시기로 맹세했습니다."

"장로의 소원은 무엇이오? 어디에 살고 싶소?"

"아쇼까라마로 돌아가도 좋고, 이곳에 남아 붓다의 가르침 속에 살아도 그만입니다. 사문에게는 붓다의 가르침을 펴는 곳이 고향입니다."

"나는 장로를 돕고 싶소."

"사문이 도움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아쇼까왕은 잠시 침묵했다. 그런 뒤 삿다 장로를 보고 말했다.

"장로께서는 이곳에 남아도 좋다고 했소. 고향이 라트나기리라고 말했소. 아쇼까라마를 지어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에게 맡겼듯 나는 라트나기리라마를 지어 장로에게 맡기고 싶소."

"사문이 태어난 고향 라트나기리에 사원을 지어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깔링가에 붓다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오?"

"고따마 붓다께서는 일찍이 사문의 고향 라트나기리에서 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다야기리, 랄리타기리에서 법을 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깔링가 백성들 대분분이 불교신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상속자'로서 반드시 라트나기리와 우다야기리, 랄리타기리를 순례할 것이오. 그리고 내가 다녀간 표시로 탑을 세울 것이오. 장로에게 약속하겠소."

"대왕님이시여, 붓다께서 다녀가신 우다야기리, 랄리타기리에도 사원을 지어주십시오. 우다야기리라마와 랄리타기리라마가 지어진다면 그곳에서도 붓다의 담마 수레바퀴가 힘차게 구를 것입니다."

아쇼까왕은 즉시 호위대장에게 지시했다.

"깔링가 왕실의 모든 창고는 이제 나의 것이 되었소. 그러니 왕실창고들의 모든 식량과 보석들을 꺼내 라트나기리라마, 우다야기리라마, 랄리타기리라마를 짓는데 지원을 아끼지 마시오. 호위대장은 이곳에 남아 세 곳의 사원들이 완공될 때까지 남아서 감독하시오. 나는 그대에게 보병 10만 명을 주어 라트나기리에 주둔하도록 명할 것이오."

"보병 10만 명이면 세 곳의 사원은 2년 안에 완공될 것입니다."

호위대장은 보병을 동원해 3년 동안 아쇼까라마를 지을 때 감독한 경험이 있는 장군이었다. 아쇼까라마를 지을 때도 수십 기의 거대한 가마에 황토벽돌을 구워 사문들의 예배공간인 차이티아(塔院), 거주공간인 비하르(僧院), 사문들의 꾸띠(작은 숙소)들을 수십 채 조성했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삿다의 법문을 듣고는 몹시 흡족해했다. 전륜성왕이 어떤 대왕인지 확실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삿다 장로는 즉시 다울리 언덕을 떠나 고향인 라트나기리로 갔다. 라트나기리는 켈루오강 강변 언덕에 있었다. 그런데 삿다 장로가 고향 라트나기리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은 폐촌이 되어 마을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계속〉

